

## 스데반 설교 3 - 모세

행 7:17-36

10. 3. 21 주일 설교 노트

### 1.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다

-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cf)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 15:5, “..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3-14, “..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18-1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cf) 교활한 방법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1:15-16,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 a.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

계 3:7-8, “..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 b. 믿음의 숨은 영웅 - 십브라와 부아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 2. 모세의 초반기 40년(20-22절)

-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갈리더니,  
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cf) 히 11: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 3. 모세의 중반기 40년(23-29절)

- “23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cf) 히 11:24-25,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cf) 마 16: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4. 모세의 후반기 40년(30-36절)

•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백 여겨 알아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a.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한 모세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b.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

27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cf) ‘게르솜’ =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구나’

c.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지도자)와 속량하는 자(구원하는 자)’로 보내심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